

일본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강 란 혜*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최근 일본에서는 우울의 저 연령화가 지적되면서 심인성(心因性)이라 생각되는 가벼운 증상의 우울증 내지는 가벼운 우울상태로 진단되는 케이스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田村, 2002). 이에 아동기 우울증의 존재가 인식되어 오면서 일본에서는 임상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기의 우울증상은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며 학업성적의 저하, 절망감에 의한 자살, 식욕부진에 의한 아동의 생활적응이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청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Goodyer & Altham, 1991; 本城, 1998). 이러한 결과는 보다 조기에 유효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아동기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특성이나 발현하는 메카니즘을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아동의 우울증 대부분은 환경요인의 영향이 크며 친구관계나 가족관계라는 가까운 대인관계와의 관련을 중시한 연구가 많이 보여진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아동의 발달과 적응의 문제를 가족관계의 입장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해 오고 있다(Sameroff, 1994; Wagner & Reiss, 1995; 數井·無藤,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인지하는 우울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아동이 인지하는 가족관계와 우울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동경에 소재한 초등학교 가운데 임의로 추출된 7개 학교에서 4, 5, 6학년생을 각각 1개 학급 또는 2개 학급으로 연구대상자는 372명이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12부를 제외하고 총 36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가족 관계는 Family Environment Scale(Moos, 1986)의 가족 관계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우울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Kovacs(1985)가 개발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360명 아동의 우울 득점의 평균은 10.1, 표준편차 3.9이었으며 의미 있는 남, 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우울득점에 대해 학년($F(6.37)=1.13, p>.10$)과 성별($F(6.37)=0.52, p>.10$)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관계의 영역별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가족결속력 $r=-.467(.000)$, 가족 내 갈등 $r=-.401(.000)$, 가족표현력 $r=-.364(.000)$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 가족결속력은 가족관계의 영역 중 우울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이었다. 즉, 가족결속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족결속력은 자녀의 우울수준의 결정적 요소로 나타나 이는 아동이 가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 우울감이 줄어들고(西出, 1993), 가족에 불만을 갖고 결속력이 낮다고 인지하는 아동은 우울감이나 불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Ohannessian, Lerner, Lerner & Alexander, 1994)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나 교육 등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는 아동이 인지하는 가족관계와 우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의 가족시스템기능 인지의 영향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